

# 소설 '태백산맥' 감동 다시 한번

##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 육필 원고 등 자료 전시

문인 200여명 참석 21일 개관식

현부자집 등 '문학 무대' 탐방도

분단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태백산맥 문학관'(이하 문학관)이 착공 3년만인 오는 21일 작품의 무대가 된 보성군 벌교읍에 문을 연다.

소설 완간 2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개관식에는 조정래 작가 부부를 비롯해 소설가 공지영, 구효서 등 200여명의 문인들과 박태준 전 총리, 이어령 교수,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씨 등이 참석한다. 또 오후 5시에는 소설 속 배경이 됐던 '현부자네 집'과 '소화의 집'을 둘러보는 '문학무대 탐방'과 가수 장사익씨의 축하무대가 마련된다.

벌교읍 회정리 일대 4천359㎡ 부지에 지상 3층, 전체 건축 면적 1천375㎡ 규모로 세워진 문학관은 단일 문학작품을 위해 지어진 '국내 최대 작품 전시관'으로 총 사업비 33억여원을 투입, 2005년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시대 정신인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북향으로 지어졌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문학관에는 142건, 623점에 이르는 작가의 육필 원고와 취재수첩 등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자료가 소설의 출간 과정별로 전시된다.

1층 전시실에서는 작가의 태백산맥 집필 과정을 보여준다. 4년간의 자료조사, 6년간의 집필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작가의 육필원고(200자 원고지 1만6천여장)도 함께 전시된다.

소설 자체를 조명하는 전시공간인 2층 전시실에는 작가의 문학 세계를 알리는 '작가의 방' '북카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오는 21일 작품 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 문을 연다.

등이 들어선다.

또 문학관 옆 옹벽에 설치되는 세계 최대의 자연석 벽화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백두대간·지리산·독도 등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국토를 형상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석 벽화(길이 81m 높이 8m)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원형상(原形像)-백두대간의 염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벽화는 울릉도, 북한, 지리산, 제주도, 설악산 등 한반도 곳곳에서 모은 3.5t 분량의 조약돌을 일일이 붙인 모자이크 방식으로 제작됐다. 한국화가 이종상 서울대 미대 명예교수와 조정래씨, 문학관을 설계한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대표와 함께 기획했다.

문학관에서는 내년 5월부터 2개월간 보성 출신 작가 20명이 주축이 된 '태백산맥을 그리다' 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며 내년 6월 23일부터는 9주동안 대학생, 주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에 대학'이 진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태백산맥 문학관은 보성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벌교읍을 전국 문학기행의 1번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1-858-2992.

/보성=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 시립예술단체장 인선 박차

## 국극단장 송순섭 단장 재위촉

## 국악관현악단장 심인택 내정

## 교향악단·무용단장 공개모집



송순섭 단장

올 말까지 4개 시립예술단체장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광주시가 현 광주시립국극단장을 재위촉하는 등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광주문예회관에 따르면 이날로 임기가 만료된 송순섭 현 광주시립국극단장은 재위촉이 결정됐다. 19일 광주시청에서 위촉장을 받게 될 송단장은 앞으로 2년간 국극단을 이끌게 된다.

1년간 객원 체제로 유지됐던 국악관현악단은 객원지휘자로 참여해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던 심인택(우석대 교수) 전 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차기 단장으로

로 내정돼 시장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은 공개 모집으로 전형방법을 확정했다.

국악관현악단과 마찬가지로 1년간 객원 체제로 운영했던 광주시향은 올해 한해 객원지휘자로 참여했던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공개 모집으로 방향을 돌렸다. 또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립무용단장 역시 공개 채용을 통해 적임자를 뽑을 예정이다.

단장 선임 실무를 맡고 있는 문예회관은 최근 모집 공고를 냈으며 오는 24~2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 차기 단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245회 정기연주회

## 21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4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미국 줄리어드 음대 출신으로 현재 뉴햄프셔 뮤직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폴 폴리브니가 객원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문을 열며 금호 챔버소사이어티 펠

버로 활동하고 있는 체재일(서울시향 클라리넷 수석)씨가 모차르트 최후의 협주곡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를 협연한다.

파넬레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5번'이 장식한다. 1888년 초연된 '교향곡 제 5번'은 운명적인 어두운 그림자와 감성적인 감미로움이 어우러진 곡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폴 폴리브니

# '石心竹本' 한국화가 박종석 개인전

## 2008 광주국제영화제

## 개막작 '코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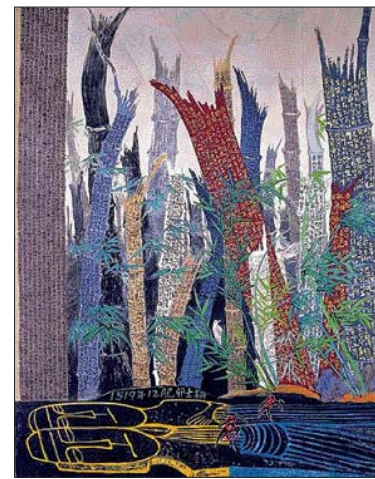
## 광주신세계갤러리

한국화가 박종석씨가 오는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히말라야 등지의 세계 오지를 돌며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돌 같은 마음과 대나무와 같은 근본(石心竹本)'을 주제로 호남의 전통화사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기묘사화와 양광손'은 조선시대 호남 화파의 조사로 일컬어지는 화포 양광손의 절개를 화면에 담아낸 작품이다. 대나무를 가득 그린 뒤 그 위에 양광손이 남긴 글귀를 새겼다.

또 '역사-일어서는 빵'은 목의 번짐을 최대한 살린 대신, 과감하게 여백을 비워둔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다양한 해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기묘사화와 양광손'

박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상(2006년)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본 탐정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하야시 가이조 감독의 '코드'가 오는 12월 4~8일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2008광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안호 해독의 천재인 주인공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안호 패턴에 매료돼 상하이로 날아가 안호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경쾌한 터치로 그린 탐정 영화다.

하야시 가이조 감독은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개막작 상영에 앞서 무대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영 시네마', '이청준 특별전' 등으로 진행된 2008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모두 30여편의 장·단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서 모나리자 'e-감상'

## 유럽디지털도서관 포털사이트 오픈

광주의 미술 애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사 '모나리자' 진품을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유럽디지털도서관(EDL) 프로젝트의 핵심 EDL 포털사이트(www.europeana.eu)가 오는 20일 공식 가동된다고 18일 밝혔다.

EDL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6월1일 채택된 '2010년 EU 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듬해인 2006년 11월 문화장관회의 합의, 이어 2007년 9월 유럽의회 승인에 의해 27개 회원

국 도서관과 박물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가 착수됐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EDL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면 고문서를 포함한 각종 도서, 음반, 미술작품, 사진, 영화 등 디지털화된 문화 자료를 감상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도서관 및 박물관이 소장하고는 있어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사료나 작품들도 EDL 포털사이트에서는 감상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건강한 가정 만들기 대회



(사) 전국주부교실 전남도지부(회장 이송자·사진)는 20~21일 이틀간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에서 '2008년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 대회'를 갖는다. '내가 웃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랑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 주부교실 임원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지자체 발전에 앞장서는 여성리더가 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주부교실 전남도지부는 최근 여성들의 정보교류와 사회활동을 담은 'New Leader 전국주부교실 전남' 제2호를 발간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featuring '大山프리모님네기발' and '가발' with images of people and text about hair care and styling.

Advertisement for '보양음료' (Nourishing Beverage) featuring '속취애소' and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with images of a beverage can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